

동아시아학술원 20년 철학방면 연구성과

— 유학과 경학 방면 연구를 중심으로

李吟昊* · 金渡鎰**

- | | |
|-------------------|----------|
| I. 서론 | IV. 자료구축 |
| II. 저술(저역서, 영인총서) | V. 마무리 |
| III. 학술대회 | |

● 국문초록

동아시아학술원의 대표적 연구공간은 대동문화연구원, 유교문화연구소, 학술원 산하 인문한국연구소 등이다. 이 세 단위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철학 방면 연구는 주로 저술(저역서, 영인출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학술대회와 자료구축을 통해서도 그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유교문화연구소에서는 학술원 개원 이래 ‘유교문화번역총서’와 ‘유교문화연구총서’를 통해 유학의 현대화 문제에 천착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학술대회에서도 ‘경학(유학)’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에서는 한국유학(경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고전철학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활동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르러서야 동아시아적 연대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영인총서를 통하여 조선유학(경학)의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학술적 자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부교수

한편 자료구축의 측면에서는 유교문화연구소의 ‘유경정문화사업’, 인문한국연구소의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한국주자학용어시스템’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세 사이트에서는 한국 유학, 특히 한국 경학에 관한 자료 구축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향후 한국고전철학연구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고전철학 방면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연구의식의 심화와 자료구축의 확장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고전철학연구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혹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생의 학술담론은 이러한 관점과 의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대동문화연구원, 유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소, 유학의 현대화, 한국학, 동아시아고전철학

I. 서론

2000년 동아시아학술원이 개원한 이래, 학문단위로는 문, 사, 철, 공간단위로는 동아시아, 시간단위로는 전근대를 아우르면서 독자적 성과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학이라는 학문적 모델의 구축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은 한 기관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을 넘어서 개별적 학문단위, 격절한 공간, 유장한 시간을 통섭하는 동아시아학이라는 학문단위의 정립 과정을 일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실로 20년의 시간은 동아시아학의 난산의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시공과 개별 학문을 통섭하는 형태이다 보니, 그 기준점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다는 데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시간 한국학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동아시아학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면모가 약여하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학은, 자국의 학적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자국 중심주의로 환원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론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한국학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인접국가의 학문분야와 방법을 아우름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학술원에서 동아시아학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설정한 한국학의 양상을 거칠게 거론하면, 문학 분야에서는 전근대 지식교류와 근현대 문화현상을, 사학분야에서는 역사인구학과 자료학을, 철학분야에서는 현대유학담론과 경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근대와 전근대의 단절을 지양하고 통섭 내지 연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논의도 한국학을 중심에 두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필자들이 담당한 몫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철학 방면의 연구사적 정리와 의미의 부여이다. 구체적으로 고전철학에서 유학과 경학 방면의 연구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대표적 연구공간은 그 탄생의 모체가 된 대동문화연구원과 더불어 유교문화연구소 등의 기관과 학술원 산하 인문한국연구소 등이다. 이 세 단위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유학과 경학 연구는 주로 저술(저역서, 영인출판)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학술대회와 자료구축을 통해서도 그 연구의 영역을 심화 또는 확장시켜 나갔다. 이에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철학방면 성과를 저술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부가하여 학술대회와 자료구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0년의 성과를 모두 적시하

기는 어렵기에 가급적 그 핵심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지난 시간의 회고이기에 평면적 서술에 그칠 우려도 있고, 지나치게 미화 혹은 반성의 순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렇게 보낸 시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인 만큼, 가능하면 담담하게 동아시아학술원 20년 철학방면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회고와 반성, 그리고 전망을 해 보기로 하겠다.

II. 저술(저역서, 영인총서)

동아시아학술원의 철학 방면 저술은 유학과 경학 방면의 저서, 역서, 그리고 영인총서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저역서는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며 인문한국연구소에서는 개인이 고군분투하여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영인총서는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주로 발간하였는데, 학술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먼저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된 저역서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교문화연구소는 지난 20년간 저역서 발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0년 대에 ‘유교문화번역총서’를 기획하여, 유교경전의 핵심인 四書와 『詩經』과 『書經』을 우선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 번역서 시리즈는 1932년에 발간된 언해 사서 및 『시경』, 『서경』을 현대어로 다시 풀이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표준 경서번역서는 宣祖 대에 완성된 교정청본 경서언해였으며, 이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서번역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이런 경서번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롭게 경서번역을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言解四書』 및 『언해시경』, 『언해서경』이라 할 수 있다.¹⁾ 1932년에 출간된 『言解四書』는 일단 조선의 교정청본 경서언해의 전통을 계승한다. 『언해사서』의 번역 저본이 경서언해와 동일하게 주자의 四書 주석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번역서 시리즈는 조선의 경서언해와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이 있다.

1) 『言解四書』의 출판 시기는 다음과 같다. 『言解大學章句』(1932년 8월 10일), 『言解論語』 상하(1932년 8월 10일), 『言解孟子』 상중하(1932년 8월 10일), 『言解中庸章句大全』(1932년 8월 10일).

경서언해는 직역만 있음에 비해, 『언해사서』는 ‘직역’, ‘훈고’, ‘의역’의 세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서언해가 주자의 集注와 章句를 저본으로 하고 퇴계와 율곡의 번역을 수용하여 이루어졌음에 비해, 『언해사서』는 주자의 주석을 저본으로 하고, 『사서집성』, 『사서석의』, 『江訂四書』, 『혹문』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근대 일본의 번역서도 참조하였다.²⁾ 실로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 『言解四書』 및 『언해시경』, 『언해서경』은 비록 주자의 경전주석서를 저본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체제나 주석의 취사에서 그 면목이 매우 새로웠다.³⁾

유교문화연구소에서 2000년대 이후 발간한 ‘유교문화번역총서’의 四書와 『시경』, 『서경』의 번역서는 바로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아, 현대어로 풀이하고 적절하게 가감을 한 것이다. 특히 현대어의 풀이가 매우 평이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때문에 이 시리즈는 전근대 경서 번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경서번역의 한 전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유교문화연구소는 출범 이후 거의 매년 1권 이상의 ‘유교문화연구총서’라는 명칭 아래 2019년까지 총 23권의 학술서적을 꾸준히 출간하였다.

‘유교문화연구총서’는 표면적으로 여러 저자들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술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짚어 보면 각 책에서 연구소 설립 비전인 유교사상의 현대화라는 공통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총서의 첫 권인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2002)에서 저자 최영진 전임소장은 동아시아론, 유교현대화,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유교담론을 주요 주제로 다룬 바 있다. 또한 『한국 도학파의 의리사상』(2005)에서 저자 오석원 전임소장은 주로 퇴계 이황에서부터 면암 최익현에 이어지는 도학과 선비사상을 다루었지만, 이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유교의 역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류승국 교수의 『한국유학사』(2009)의 마지막 부분은 조선 성리학적 전통을 이어 근현대에서의 유학이 어떠한 정신을 유지하였는지 살피고, 이후 유학사상의 미래적 전망에 대해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준 교수의

2) 『言解四書』, 「言解四書刊行에 對한 由歷」, 문연사, 43면.

3) 『言解四書』의 특징과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이영호, 서혜준, 「『대학』 해석의 역사와 그 번역의 문제」, 『한국 경부번역의 현황과 전망2 -사서 및 자부 유가류 문헌 검토』(발표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9 참조.

『한국사상의 방향: 성찰과 전망』(2011)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유학의 현대적 의의와 그 미래적 전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유학이 지닌 현대적 의의는 무엇이고, 미래지향적 학문이기 위해 유학의 어떤 비판의식이 계승되어야 하는지 논하였다.

‘유교문화연구총서’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저작은 신정근 전임소장의 『동아시아 예술과 미학의 여정』(2018)이다. 이 책은 신정근 교수가 그동안 동아시아 미학 및 예술과 관련해서 썼던 논문을 모은 논문집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예술이 어떤 공간을 창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쓰인 기운생동과 같은 핵심 개념의 의미와 특성을 살핀 저작이다. 이는 연구소와 밀접히 연관된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그동안 많은 동양예술철학 혹은 동양미학 연구자들을 배출해 온 배경을 반영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이 책 역시 ‘유교문화연구총서’ 전체를 걸쳐 면면히 이어지는 총서의 핵심 주제인 유교사상의 현대화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 마지막 장에서 현재 인문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동양미학 담론을 중심으로 재구축될 수 있는 인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책 전체를 총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문한국연구소에서는 이영호 교수를 중심으로 유학과 경학에 관한 다종의 역서와 1종의 저서가 번역, 집필되었다. 먼저 번역서를 보면 주로 인문한국연구소가 성균관대출판부와 연계하여 출판하는 ‘동아시아자료총서’에 『이탁오의 논어평』(2009), 『일본논어해석학』(2011), 『주자어류고문해의』(2012), 『유교의 이단자들』(2013), 『조선의 양명학』, 『왕부지의 중용읽기』(2016), 『중국경학사』(2020) 등의 역서를 실었다. 이 번역서들은 사상적으로는 조선의 주류이념이었던 주자학의 대척점에 있었던 양명학(『이탁오의 논어평』, 『조선의 양명학』, 『유교의 이단자들』), 기철학(『왕부지의 중용읽기』)에 치중하며, 공간적으로는 조선의 전적(『주자어류고문해의』) 뿐 아니라 일본(『조선의 양명학』), 대만(『일본논어해석학』), 중국(『중국경학사』)의 연구서를 포괄한다. 약 10년간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서와 양명학 계통의 저서를 번역한 다음,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논어학』(대동문화연구총서29, 2019)을 집필하기에 이른다.

이 책의 원래 구도는 동아시아 4국, 즉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경학, 특히 논어학을 다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일본과 베트남의 논어학에 관한 정보가 없다. 일단 분량 면에서도 이를 한 책에 담기에 무리가 있었기에 후일 보완할 것을

기약하였다. 이 책을 소개한 지면을 보면, “(이 책은) 동아시아 논어학의 두 축인 중국과 조선의 『논어』 주석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 경학사에서 경학과 유학의 상호 조응으로서의 주자와 양명좌파 논어학의 존재를 규명하였다. 이는 종래 도외시 된 중국 양명학파의 논어학을 중국경학사에 위치시켜 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논어학은 주로 퇴계학파의 논어학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퇴계 주리철학의 반영으로서의 퇴계학과 경학의 특징을 드러내어 주었다. 그리고 조선 논어학의 古의 지향⁴⁾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경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았다.”⁵⁾라고 하였다. 즉 이 책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의 경학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 하에, 기존의 연구에서 소외된 경학 현상(중국 양명학과 경학)과 가장 핵심적인 경학적 사유(조선 퇴계학과 경학)를 다루고 있다.

이상 이영호 교수의 역서와 저서는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서 경학문헌과 연구서를 번역하고 경학연구서를 저술한 측면이 역력하다. 일단 동아시아 각국의 전적을 아우르는 번역서를 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경학 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이 이룬 성과로써 일정하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의 구현이나 업적의 양적 질적수준에서 보자면, 명백하게 한계가 존재한다. 인문한국연구소에서 고전철학으로 유대할 만한 연구인력의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업적의 미흡함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이영호 교수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학 연구자들과의 학술적 모임을 통하여 한국경학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 경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후술하겠다.

정리하자면, 유교문화연구소의 저서와 역서가 명백하게 유교의 현대화 지향을 구현한 것이라면, 인문한국연구소의 저서와 역서는 주로 동아시아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서 유학 혹은 경학에 접근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경향은 두 연구소가 진행한 학술대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4) 조선 논어학의 주된 경향은 주자의 경설에 대한 보완과 해석이다. 그런데 조선의 주자학자와 실학자 중에는 주자의 논어설이 아니라, 주자 이전의 선진과 양한, 육조, 북송의 논어설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조선의 논어학을 다채롭게 바라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필자는 주자학 이전의 논어설에 대한 조선학자들의 관심을 ‘古의 지향’이라 명명하고,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5) 이영호,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차이나브리프』 7(3),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2019, 171면.

한편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문한국연구소의 저역서의 성과와 내용을 달리 하면서 학술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영인총서이다.

1958년에 개원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은 한국 대학의 인문학연구소 중에서 가장 오랜 연혁을 지니면서 동시에 학술사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한국 학술사에서 중요한 전적들을 영인간행한 것은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전근대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기여를 하였다. 대동문화연구원은 개원한 1958년에 『西厓文集』, 『栗谷全書』, 『退溪全書』를 영인한 이래, 2019년에 『泮林英華』에 이르기까지 총 60종이 넘는 전적을 영인하였다. 반세기에 걸쳐 60여종의 전적을 영인한 것은 어찌 보면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상황이 그러하지 않다.

약 반세기 걸친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출판은 1989년을 분수령으로 삼는다. 1989년 이전의 영인 전적은 주로 ①기존의 알려진 저명문집, ②주로 조선전기, 중기 주자학파의 문집, ③교재용 경전, ④고려, 조선초기의 문집, 연행록 등이었다. 1989년 이후는 ①문사철에 걸쳐 새로운 자료 발굴, ②주로 조선후기 실학과 문집, ③『한국경학자료집성』, 『근기실학연원제현집』과 같은 대규모 선집자료 등을 영인하였다.⁶⁾ 특히 동아시아학술원이 세워진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는데, 유학(경학) 관련 영인총서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近畿實學淵源諸賢集』 1-6, 『增補 明南樓叢書』 1-5

2005년: 『沈大允全集』, 『薑山全書』

2006년: 『邵南遺稿』

2008년: 『茶山學團文獻集成』 1-9

이상의 전집(전서, 총서, 집성)은 최한기, 심대윤, 이서구, 윤동규 같은 개인 문집이거나, 실학과에 속하는 여러 학자들의 문집을 집성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는 『增補 明南樓叢書』, 『薑山全書』이며, 후자의 경우 전형적 예는 『近畿實學淵源諸賢集』, 『茶山學團文獻集成』이다. 이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6) 이영호, 한영규, 「대동문화연구원 출간사업의 성과와 의의」, 『대동문화연구』6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85면 참조.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⁷⁾

■ 개인 문집의 집성

1 『增補 明南樓叢書』(2002년, 5책)

惠崗 崔漢綺(1803~1877)는 실학사상과 開化思想의 가교자로서, 그의 氣學的 학술체계는 조선사상사에 미증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그의 글들은 일찍이 1971년 大東文化研究院에서 『明南樓叢書』라는 제목 하에 간행되었다. 이후 1999년에 최한기의 宗孫家에서 그의 새로운 저술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이에 2002년에 이를 반영하여 『增補 明南樓叢書』라는 제목으로 증보된 영인본을 출간하였는데, 최한기에 관한 이 영인본이 아마 마지막 결정판이라 여겨질 정도로 그의 저술들을 망라하였다. 특히 이 영인본은 새로 발굴된 『素謨』, 『承順事務』 같은 난독자료들을 정서하여 영인함으로써, 최한기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薑山全書』(2005년)

薑山 李書九(1754~1825)는 18세기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문인들이나 연구자들에게 항상 의식되는 존재였다. 특히 그는 四大家의 일원으로 알려졌기에 문장가로 명망이 높았다.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에서 언급되거나, 현재 이서구의 문학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서구는 경학에도 일가견을 갖춘 학자였다. 그가 지은 『상서강의』나 『시경』, 『중용』, 『논어』에 관한 주석들에서 조선후기 실학과 경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의 저술은 공간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이서구의 저술 가운데 공간된 것은 1985년에 출판된 『척재집』이 유일하다. 이 책은 이후 한국문집총간 시리즈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서구의 유문은 『척재집』 외에 『강산초집』, 『강산시집』 등 시문집과 경학 저술을 포함하며 무려 16종을 상회한다.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이 모두를 수습하여 『강산전서』로 발간하였다.

● 실학과 학자들의 유문 집성

1 『近畿實學淵源諸賢集』(2002년, 6책)

이 총서는 近畿實學의 宗匠인 星湖 李瀾(1681~1763)의 家學淵源에 해당되는

7) 4종 전집의 해설 중, 『近畿實學淵源諸賢集』, 『增補 明南樓叢書』에 관한 설명은 이영호, 한영규의 앞의 논문, 141~142면에 실린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전재하였다.

李尙毅, 李夏鎭, 李潛 등과 이익의 門弟子姪인 李秉休, 李用休, 李森煥 등의 문집과 저술들을 집록해 놓은 영인본이다. 이익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가학적 전통은 종래의 형이상학적 사변을 지양하고 학문적 가치를 經世致用에 두는 실학의 경세치용적 성향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익의 가학연원은 곧 실학연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선 사상사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본 영인본은 종래 볼 수 없었던 이러한 李瀾 家學(星湖學派)의 여러 저술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수록한 것으로, 한국실학사, 사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② 『茶山學團文獻集成』(2008년, 9책)

이 전집은 茶山 丁若鏞이 康津 流配 18년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제자들이나 인물들이 남긴 저술들을 수합하여 엮은 것으로, 모두 9책, 23종의 자료를 영인하여 수록하여 놓았다. 이 전집에 수록된 자료들은 대부분 새로 발굴된 자료로서 유일본인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희귀성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실린 저술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실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주자학자들의 성리담론과 달리, 경세학(『事大考例』), 농학(『種畜會通』), 지리학(『耽羅職方說』), 천문학(『井觀編』), 해양학(『柳菴叢書』) 등 대체로 실생활에 필요한 글들이 다수 있다. 때문에 이 전집은 차후 다산학의 계승양상과 이를 통한 실학의 전수과정을 고찰하는데 필수 전적이다.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사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단순히 특정 문집이나 저술을 영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사 혹은 문학사에서 중시되는 학자가 있다면 그 학자의 유문을 오랫동안 수습하여 총서 형태로 영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유문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증보 형태로 재출간하기도 하였다. 『增補 明南樓叢書』가 바로 좋은 예이다. 위의 예시에서 보다시피, 조선 후기 氣學을 새롭게 제기하여 후일 조선사상사 연구에 파란을 일으킨 최한기의 문장은 일찍이 1971년에 大東文化研究院에서 『明南樓叢書』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후 1999년에 최한기의 宗孫家에서 『素謨』, 『承順事務』 같은 새로운 저술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이에 2002년에 이를 반영하여 『增補 明南樓叢書』라는 제목으로 증보된 영인본을 출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발굴된 자료들은 초서체의 난독자료였는데, 이를 탈초하고 정서하여 영인하였다. 최한기에 관한 이 영인본이 아마도 결정판이라 평가할 수 있기에, 이후 최한기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차 영인한 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증보 또는 보유를 하는 이러한 영인 형태는 타 연구기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동문화연구원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종의 전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증보명남루총서』와 더불어 『연행록선집보유』가 그러하다. 이러한 영인의 과정과 의미에 대하여 전대동문화연구원장이었던 임형택 교수는 「연행록선집 보유」 간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1960년에 『연행록선집』(상), 1962년에 『연행록선집』(하)을 발간하였다. 총 20종을 수합, 축소 영인한 형태이다. 이미 간행된 『노가재연기』와 『열하일기』 등을 제외하고 당시 여건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거의 망라한 것이었다. 이들 흠어진 자료들을 國故文獻으로 중시, 수집, 편찬하고 거기에 연행록이란 개념을 부여한 것은 기실 역사상 초유의 사업이었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1977년부터 1982년에 걸쳐 11책으로 간행한 『국역 연행록선집』 또한 대동문화연구원의 『연행록선집』을 번역한 것이다.

근래 임기중 교수에 의해서 『연행록선집』(동국대출판부, 2001)이 편찬 간행되었다. 전집이란 서명에 상응해서 연행록류를 두루 수합, 총380여 종, 100책에 이르는 大部巨帙이다.

지금 이 『연행록선집 보유』는 당초의 선집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물론, 전집에서도 누락된 나머지를 수습한 형태이다. 따라서 기왕에 학계에 소개된 연행록류의 낙수들을 주워 모은 셈이지만, 그래도 도합 20종의 적지 않은 분량이다. …… 우리 대동문화연구원은 『연행록선집』을 출간한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시점에서 다시 그 보유편을 펴낸다. 역사상 처음으로 산재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 연행록이란 개념을 부여해서 간행했던 과거의 성과를 이어서 마무리 짓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⁸⁾

1960년에 영인된 『연행록선집』은 당시 모을 수 있는 연행 관련 기록을 거의 망라한 것이었다. 흠어진 자료를 수문화하여 모은 다음 영인하고서, 여기에 처음으로 연행록이라는 개념을 부여하였다. 이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이 책을 번역함으로써

8) 임형택, 「「연행록선집 보유」 간행사」, 『연행록선집 보유』,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3면.

연행록에 관한 연구의 붐이 일어났다. 이러한 연구의 붐은 연구의 방면에서 뿐 아니라, 비록 타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거질의 『연행록전집』의 출간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50년의 시간이 흘러 『연행록전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과 『연행록전집』(동국대출판부)에서 누락된 연행록 20여종을 찾아 다시 영인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2008년에 간행한 『연행록전집보유』이다. 대동문화연구원의 50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행록 영인은 국내 학계 뿐 아니라, 국외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 결과 2011년에 성대 대동문화연구원과 중국 복단대 문사연구원은 기왕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연행록을 바탕으로 『韓國漢文燕行文獻選編』 30책을 공동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 이르러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출판의 결과물은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지적자산으로 자리 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예시한 薑山 李書九의 유문을 모아서 영인하는 과정 또한 이와 유사하다. 당대나 후대에 명망을 획득한 이서구의 유문들은 각지에 산재해 있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가 있었다. 이를 최대한 모아서 『강산전서』로 발간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앞으로 이서구의 문학, 사학, 철학(경학)을 연구함에 이 전서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한편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사업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 선집자료의 영인이다. 대학의 연구기관으로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대규모 자료의 영인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일찍이 대동문화연구원은 『한국경학자료집성』 145책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영인을 수행한 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학은 유학의 본령이기에 유학을 연구함에 경학은 필수불가결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중국에서는 일찍이 『皇清經解』나 『通志堂經解』와 같은 대규모 경학자료 회집이 이미 청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 또한 『日本名家四書註釋全書』와 같은 경학자료 선집서가 근대에 간행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조선시대에 權尙夏의 『三書輯疑』, 柳健休의 『東儒四書解集評』, 徐錫和의 『經說類編』, 李海翼의 『經疑類集』 등과 같이 단행본의 규모로 조선의 경학자료에 관한 소규모 회집만이 있었다.⁹⁾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그 경학자료의 구비

9) 조선시대에 중국의 주자학 문헌이나 주자 경설에 관한 회집은 다종이 있는데, 조선의 경학주석에 관한 회집은 매우 드물다. 일단 필자가 찾은 조선의 경전주석 회집자료는 이 네 종 정도이다(이영호,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272~277면 참조).

에서는 매우 낙후하였던 셈이다. 이 양상을 일거에 변전시킨 결과물이 바로 『한국경학자료집성』의 편찬이다. 이 집성의 편찬으로 인하여, 한국은 경학자료의 측면에서 중국, 일본과 비견할 만한 자료집성을 이룩하였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이 집성을 기초자료로 하여,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국경학자료DB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하여 동아시아 경학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 이후,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기왕의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실학과 학자들의 유문을 집성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위에 예시한 『近畿實學淵源諸賢集』(2002년, 6책)과 『茶山學團文獻集成』(2008년, 9책)이다. 전자는 실학의 중흥조에 해당하는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관련된 학자들의 유문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며, 후자는 실학의 집대성자로 평가받은 정약용의 후학들의 문집과 전서들을 집성한 것이다. 이 두 전서는 명백하게 대동문화연구원의 총서 집성의 전통을 계승한 것인데, 여기서도 기왕의 공간되거나 알려진 전적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타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새로이 발굴되었거나 혹은 대동에서 새롭게 수집하여 그 결과물을 집성의 형태로 영인한 것이다. 이 두 전서로 인하여 한국실학 연구의 자료적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혹은 세계로 흩어지거나 망실되었다고 알려진 고전과 사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온 대동문화연구원의 이러한 노력¹⁰⁾은 전근대 한국학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철학 방면에서 조선실학 연구의 자료적 토대를 정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 20년간의 철학방면 연구는 산하연구소에서 각기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교문화연구소에서는 유학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문한국연구소에서는 한국경학을 중심에 두고서 동아시아 경학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학술사적으로 중요한 국학자료들을 발굴하여 영인하였는데 특히 조선후기 실학과 문헌의 집성에 주력하였다.

이상 동아시아학술원 20년간의 철학방면 연구성과의 정리에서 누락된 부분¹¹⁾도

10) 안대회 현 대동문화연구원장은 대동문화연구원이 영인사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다(안대회, 『『능양시집』 간행사』, 『菱洋詩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5면 참조).

11) 대표적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의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의 업적을 들 수 있다. 미야지마 교수는 일찍이 ‘소농사회론’으로 국내의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으며, 동아시아학술원에 재직하면서부터 족보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구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상사와 역사 연구를 결부하여, 송대

있지만, 대체로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문한국연구소는 연구로 대동문화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그 성과를 구축하였다. 이후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문한국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이러한 성과를 가시화하였으며, 또한 자료구축을 통하여 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공고화하였다. 먼저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문한국연구소의 학술대회 성과를 통해 이 점을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학술대회

유교문화연구소 초창기의 학술대회에서 눈에 띄는 기획은 전통적 유교 연구가 어떻게 인접 학문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그 현대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던 것이다. 이는 ‘유교현대화 연찬’이라는 기획명 아래 2000년에서 시작되어 2007년까지 연 1-2회의 학술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아래와 같은 각 학술대회들의 세부 명칭들을 통하여 그 기획의 범위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 2000-06-17 (유교현대화 연찬1) 현대사회와 유교공동체주의
- 2000-11-04 (유교현대화 연찬2) 유교와 사회과학의 만남1
- 2001-08-31 (유교현대화 연찬3) 유교와 사회과학의 만남2

형성된 주자학적 이념에 근거한 동아시아의 사회공동체는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작용한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곧 지금의 동아시아는 송대 이래 理學 넓게는 유교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근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야지마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이봉규 교수는 “유교적 전통을 근대와 구분되고, 근대를 통해 도태되고 소멸된 중세적 또는 전근대적 과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삶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 살아 있는 현재로서 다룬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라고 평가하였다(이봉규, 「실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학연구』 47, 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18면). 이러한 미야지마 교수의 주장은 유학이 과거의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 생생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념임을 드러낸 것으로, 종래 전근대 유학과 근대적 사유를 이분하는 논의들에 대한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그의 ‘소농사회론’과 결부되어 있는데,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을 극복하고 연속으로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다. 이 부분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철학방면 성과에 분명 중요하지만, 미야지마 교수의 학문의 본령이 역사학이기에 그쪽 서술 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때문에 철학방면의 성과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하겠다.

- 2001-11-17 (유교현대화 연찬4) 유교경전주석의 해석학적 접근
- 2002-08-23 (유교현대화 연찬5) 유교문화에서의 법과 규범
- 2003-09-20 (유교현대화 연찬6) 한국 유교문화의 현장
- 2004-02-17 (유교현대화 연찬7) 유교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 2004-11-19 (유교현대화 연찬8) 유교의 정치사상에 대한 현대정치학과의 만남
- 2005-11-11 (유교현대화 연찬9) 유교와 경영
- 2006-12-15 (유교현대화 연찬10) 유교와 행정
- 2007-06-22 (유교현대화 연찬11) 유교와 사회복지

8년여간 지속된 이 기획은 특히 인접학문 중에서도 사회과학과의 연계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간에 다소 기획과 적확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주제 선정도 있었으나, 이 기획이 여러 연구소장(서경요, 이기동, 오석원 교수) 교체 속에서도 연속성을 지니고 다년간 개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접 학문들과의 융합과 이를 통해 유교의 현대화에 대한 모색은 유교 전통을 포함한 여러 전통 문화와 사상 연구에 있어서 점차 더 중시되는 화두란 점에서, 이를 통하여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엿볼 수 있다.

이 이후 개최된 여러 국내의 학술대회 주제들 중에서도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경학의 현대화’에 연관된다. 2014년 춘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추계 학술대회, 그리고 2015년 동계 학술대회로 이어진 3개 학술대회 시리즈는 ‘경학에서 철학으로.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이란 큰 제목으로 기획되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리즈는 과거 유교 사상 연구의 기반인 경학의 현대 학문 체계 안에서 받아 온 도전과 좌절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그 학술대회 기획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당시 신정근 소장의 초청으로 1회차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서울대학교 송영배 명예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아편전쟁(1842)으로 비롯된 서양제국주의 세력의 중국침탈은 기원전 2세기 이래 중국과 그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을 2000년 이상 지배해 온 經學을 급기야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동아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양 과학, 특히 자연과학적 인식에 바탕을 둔 서양적 학문방법을 서둘러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200년간 동아시아에서 동양의 전통학문

이 더 이상 맥을 쓸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 陳獨秀는 바로 가부장적 차별주의 대신에 민주정치를, 중국의 전통 음양론 대신에 과학을, 즉 德先生(Mr. Democracy)과 賽先生(Mr. Science)을 중국이 배워야 할 계몽의 방향으로, 당시 중국의 청년학생들에게 계몽하였습니다. …… 물론 인간은 이제 자연과학을 무시하고 폐기할 수도 없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해답을 그 나름대로 찾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점에서, 과거 200년간 거의 방치되었던 우리의 ‘經學’에서 새롭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인문학의 사명은 지난 ‘경학’의 가치를 그대로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 생활과 적절히 조화하는 새로운 삶, 즉 진독수가 말하는 ‘덕’선생과 ‘새’선생과 함께 어울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경학’의 창출에 우리 인문학의 진정한 생명이 꿈틀댈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덕’선생과 ‘새’선생과 어울리는 ‘경학’의 창출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학술대회 시리즈의 기획은 경학의 현대화와 연관된다. 또한 경학이 현대적 관점에서 철학과는 어떻게 구분되거나 혹은 융회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이 동일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김도일 소장은 최근 2020년에 두 차례 걸친 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적 유교 철학은 가능한가?”의 학술대회 제목으로 개최되었고, 그 다음은 “現代經學試探”이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유교문화연구소가 새로 설정한 연구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유교문화연구소의 연구 방향을 현대적 경학의 방향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유학 연구의 비판성과 접목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유교문화연구소의 학술대회의 회고와 미래적 전망에서 가장 중시되는 지점은 ‘경학(유학)’의 현대화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교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저술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면모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한편 인문한국연구소에서도 그 연구성과인 저술에 상응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켰다. 인문한국연구소에는 철학 방면의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¹²⁾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을 결집시키고 특히 후학 양성에 매진하여

12)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 초기에는 이영호, 김명석, 백민정 등이 주로 철학 방면 연구를 담당하였다. 이후 백민정은 가톨릭대 철학과, 김명석은 연세대 철학과 전임교수로 부임하면서,

이들을 통해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연구의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연구인력의 부족에 이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동아시아 고전철학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이는 저역서를 발간하고 자료를 구축하며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모든 연구노력에 깔려 있는 핵심문제였다. 이 문제는 여러 상황이 얹혀 있어서 그 설정이 매우 어려웠다. 특히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를 고전철학과 연계하였을 때, 가장 난맥상은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철학의 동아시아적 위상에 비해 한국의 고전철학은 세계에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그 위상이 미약하였다. 이는 한국 고전철학을 관통하는 담론의 문제에서부터 그 자료의 부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자기 존재의 증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인문한국연구소의 노력은 매우 실질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는 동아시아 각국의 고전철학 연구자 특히 유학(경학) 연구자들을 한국유학의 세계로 유인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그들이 한국의 유학을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과 개방이었다. 전자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후자는 자료구축을 통해서 그 기초를 다졌다. 여기서는 먼저 학술대회의 양상을 통해 그 면모를 보기로 하겠다.

인문한국연구소의 고전철학 특히 한국경학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먼저 동아시아학과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일단 오랜 시간 꺼져버린 한국경학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가운데 한국경학을 동아시아로 발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고전유학 관련 학회에 무수하게 참여하면서 한국경학의 전모를 알리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는 단편적이거나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논문, 혹은 공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5년 하반기에 대만사범대 金培懿 교수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이영호 교수가 주축이 되어 한국경학을 중심에 두고 동아시아고전철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학술대회의 형태로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6년 8월 23일에 ‘경학의 원류와 창신’이라는 주제로 ‘第一屆儒家經典的跨域傳釋國際學術研討會’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동아시아 4개국(한국, 대

이영호 교수만이 남아서 이 방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일 조민환, 임태승 교수가 미학 전공으로 부임하였다.

만, 홍콩, 일본) 21명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 한국유학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 학회를 개최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기왕의 동아시아 고전철학이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연구되는 데서 오는 일종의 반성이 이 학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일어났고, 그 결과 한국유학, 경학을 중심에 두는 학회로 성격이 규정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21명의 발표자 중, 한국경학에 관한 논문이 70%를 상회하였는데 특히 대만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한국의 경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¹³⁾

姜智恩(國立臺灣大學): 한국 경학사 연구의 창신적 가치 대두에 대한 역사적 고찰
 陳逢源(政治大): 한원진의 『朱子言論同異考』 연구 -『大學』을 중심으로
 金培懿(臺灣師大): 融通一貫의 경학-崔象龍의 『論語辨疑』 연구
 馮曉庭(嘉義大): 李玄錫의 『易義窺斑』에 나타난 실용경학관
 宗靜航(浸會大): 정약용 『梅氏書平』의 시론적 연구
 許子濱(嶺南大): 정약용 『春秋考徵』의 ‘禘’說에 대한 平議
 邱惠芬(長庚科技大): 조선시대 정조의 『詩經講義』의 문답내용 연구
 陳亦伶(浸會大): 聖人の 書와 僞書의 形평-서유구와 홍석주의 古文尙書眞僞折衷
 論의 조정
 張曉生(臺北市立大): 성해응의 『杜註考異』 초탐
 盧鳴東(浸會大): 조선왕조의 지방에서의 禮儀활동-경상도 청도군의 향음주례의
 실천

이 학술대회는 2년 뒤, 2018년에 홍콩의 浸會大學에서 ‘중심과 지역의 문화수용과 해석’이라는 주제로 ‘第二屆儒家經典的跨域傳釋國際學術研討會’가 속개되었다. 이 때도 대만, 홍콩, 중국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유학과 경학에 관하여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중국, 대만, 홍콩 연구자들의 한국유학 및 경학에 관한 연구발표는 다음과 같다.

彭林(清華大學): 『家禮輯覽』與金沙溪의解經之法
 蔡振豐(國立臺灣大學): 朱子人心道心說中的理氣問題與韓國儒者的解釋

13) 발표자 중, 姜智恩 교수는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대만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있으며, 陳亦伶 교수는 대만인으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홍콩 침회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鄭健行(浸會大學): 朝鮮洪大容與中國杭州三士對朱子注『詩經』去「小序」辯爭述論

陳逢源(政治大): 師門, 學脈, 道統-韓元震與李東「湖洛論爭」之義理背景

馮曉庭(嘉義大): 聖人之意, 宜無不同-『經史講義』錄正祖君臣論

張曉生(臺北市立大): 讀成海應『春秋』「春王正月」經說札記

邱惠芬(長庚科技大): 正祖朝經筵論詩樣相

宗靜航(浸會大): 茶山丁若鏞『孟子』學說

1회와 2회 학술대회는 모두 한국경학(유학)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국내 연구자들의 면면을 보면, 김연중(고려대), 안병걸(안동대), 노인숙(중앙대), 최석기(경상대), 이영호(성균관대), 백민정(카톨릭대), 양원석(고려대), 함영대(경상대), 전성건(안동대), 김수경(공주대) 등으로, 현재 한국경학 연구의 중진과 신진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국외연구자들의 경우, 彭林(清華大學), 陳逢源(政治大), 金培懿(臺灣師大), 蔡振豐(國立臺灣大學) 같은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을 위시한 동아시아 각국의 경학연구자들은 이 학술모임에서 특히 조선후기 실학과 경학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대만의 張曉生(臺北市立大), 홍콩의 宗靜航(浸會大) 교수 등은 1회와 2회의 학회에 참가하면서 연속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경학에 대한 동아시아 학자들의 연구가 작지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무수히 많은 고전철학에 관한 학회가 있었지만, 한국경학을 중심에 둔 학술적 모임은 드물었다. 그 작은 흐름의 형성에 2020년에 이르러 제3회를 맞이하는 이 학회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 씨앗을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가 뿌린 것이다.

앞서 우리는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의 저역서에 드러난 연구동향을 살펴면서, 그 문제의식을 한국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학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다시피 인문한국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또한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학(유학 및 경학)을 중심에 두고서 동아시아경학에 관한 학술대회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한기형 전동아시아학술원 원장은 “(동아시아학은) 한국학을 동아시아(학)이라는 (콘)텍스트속에서 어떻게 재배치하고 재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학이 동아시아학의 생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길이 교차되는 지점속에서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¹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곧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지향하는

동아시아학은 본질적으로 한국학의 맥락에서 ‘동아시아’가 학문의 과제로 제기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그 동안 인문한국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저술과 학술대회는 바로 이런 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동아시아학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였을 때, 인문한국연구소에서 대만, 홍콩, 일본의 연구진들과 한국의 경학을 중심에 두고 학문적 토론을 5년간 이어 왔다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의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유학을 중점에 두고서 동아시아 경학연구 모임을 가졌지만, 그 연구의 양상은 단편적이고 어떤 뚜렷한 이론을 창출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학의 동아시아적 시야에서의 연구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서 2022년에 다시 한국으로 이들을 초청하여 이 학술모임을 지속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연구모임이 동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지속된다면, 한국학을 베이스로 하는 동아시아경학 연구의 지평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의 이와 같은 철학방면 성과의 기반작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경학 자료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4) 한기형,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163면.

15) 그러나 동아시아학술원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 논문의 익명의 평가는, “아직도 한국학, 혹은 동아시아학, 동아시아 담론에서의 한국학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미 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은 그 자체로서 정의 내려지기 보다는 그간 서양 학문과의 긴항 관계에서 조건적, 상대적으로 의미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서구와 서양 학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 담론이 서양 학문에 대한 지적 콤플렉스 혹은 대척점에서 제한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심사평을 남겼는데, 앞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이 한국학을 중심에 두고 동아시아학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 참고할 만한 비판의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IV. 자료구축

동아시아학술의 한국경학 및 유학 자료구축은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문한국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그 양상을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유교문화연구소

	사업명	내용
1	한국 유경 데이터베이스 (http://ygc.skku.edu/index_2013.jsp)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선정. 한국 유학 전적을 경사자집으로 분류하고서, 표점교감한 원문으로 DB를 구축함.(2011~현재) - 2020년 기준으로 『退溪全書』, 『栗谷集』 등 주요 한국 유교문헌 총 147종 31,606,069자를 구축함.
2	한국주역대전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지원사업 선정, 한국학 연구사상 최초로 한국주역대전 DB 편찬 사업 진행.(2013~ 2015년) - 『주역』 64괘와 십익에 대한 조선학자들의 주석을 수집하여 集解 형식으로 분류·정리함. 『한국경학자료집성-역경편』을 근간으로 하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문집총간』 등에 수록된 『주역』 관련 논의를 포함하였음. 수록자료 전체를 번역하였음. 이를 통해 조선유학자들의 『주역』 주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인문한국연구소

	사업명	내용
1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index.jsp)	- 2004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에서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아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경학자료집성』 145책과 『논어』 보유편을 DB화하기 시작하여, 인문한국연구소에서 완료함.(2004~2010) - 『한국경학자료집성』 소재 경학자료는 그 분량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색인조차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었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방대한 분량의 경학자료에 대한 이용확대를 도모하였음. -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표점이나 국역은 하지 못하고 세밀한 검색을 통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특히 검색기능 중 ‘주석별 검색’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음.

2	한국주자학용어시스템 (http://jjh.skku.edu/index.jjh)	- 유교 문화권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자의 글은 그의 문집, 어류, 경전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때문에 주자학 연구에 있어서 주자가 남긴 이 세 영역의 문헌을 읽는 것이 필수적임. - 이 세 영역의 주자의 문헌에 대한 용어 풀이 사전은 일찍이 한국의 주자학자인 李恒老(『朱子大全節疑輯補』), 李宜哲(『朱子語類考文解義』), 朴文鎬(『七書詳說』) 등에 의하여 저술되었음. 이들의 저술은 조선의 주자학이 수백 년에 걸쳐 축적해 온 주자 문헌에 대한 주석과 용어 해설을 집대성한 성과임. - 이에 『주자대전차의집보』를 ‘주자문집용어’, 『주자어류고문해의』를 ‘주자어류용어’, 『칠서상설』을 ‘주자경학용어’라는 명칭으로 전산화하여 학계에 제공함.
---	---	--

유교문화연구소는 산하에 한국유경편찬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 문체부의 지원하에 ‘한국 儒經 정본화 및 DB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목표는 한국의 유학 및 경학 관련문헌을 집성하여 표점한 다음, DB하는 것이다. 이 DB구축은 위에서 보다시피 상당 부분 수행되어 국내외의 한국 유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전산화 사업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국 경학과 유학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업의 확장으로, ‘한국주역대전DB’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易學 관련 주석을 가능한 한 모두 찾아서 해제를 작성한 다음, 원문 표점과 번역한 자료를 DB화하여 학계에 제공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학자료 DB화의 최종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한국연구소는 기왕의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존경각에서 이루어진 『한국경학자료집성』¹⁴⁵책의 DB작업을 계승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앞서 『한국경학자료집성』의 영인의 의미를 살펴보았거니와, 이 집성의 DB화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경학자료를 국내외에 공표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한국경학 연구자들에게 이 DB는 필수적인 참고가 되었다. 한편 한국유학에서 가장 정심한 분야는 주자학이며, 그 중에서도 주자 문헌학의 일환으로 완성된 주자의 문집, 어류, 경전주석서에 관한 사전적 성격의 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DB를 진행한 결과물이 ‘한국주자학용어시스템’이다. 국내외에 한국주자학의 수준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연구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문화연구소와 인문한국연구소의 자료구축의 핵심은 한국의 경학자료이다. 이는 동아시아학술원이 지향하는 철학연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은연중에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한국철학에서 특별히 경학에 주목함은 동아시아학술원의 모태인 대동문화연구원의 작업을 계승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학문연구의 동력으로 경학을 발굴하는 데 치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도 있다.

V. 마무리

이상으로 우리는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철학방면 성과를 유학과 경학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그 수행 기관으로는 학술원 산하 유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소, 대동문화연구원이 있었으며, 연구의 양상을 저역서, 학술대회, 자료구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의 이 세 연구소는 기왕의 축적된 연구를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에 관해서 연구소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우리는 유교문화연구소가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성이 주로 유학, 경학의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유교문화연구소가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제시한 비전인, ‘유교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안에서 인류가 함께 지향할 이념과 문화를 재발굴하자’는 것에 충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난 시간을 회고함에 과연 이 목적에 걸맞은 결과물을 창출하였는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난 20년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역서의 출간이나 학술지 발간은 물론, 인접 학문들과의 학제적 연구,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화, 그리고 DB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현대적 재해석’에 상응하는 어떤 뚜렷한 유학의 상을 제시함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 유교문화연구소장인 김도일 교수는 이 난관을 타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학, 현대경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상술된다.

“전통에서 經學이란 보편성 탐구의 학문이었으며, 또한 문사철을 위시한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근대 이후 경전은 그 권위를 상실,

경학 역시 현대 분과학문 체계 안에서 기존의 종합학문적 성격을 잃고, 현재 관련 연구는 역사학, 문헌학 영역에 주로 국한되었다. 위와 같은 과거의 영향 아래서, 서구적 보편성으로 경전을 분석하여 그 보편성의 근거를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보편성에 찾고자 하거나, 오리엔탈리즘적 방식으로 비서구적 보편성을 산정하는 노력이 그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에서의 경학 연구 방식은 유학의 중핵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근대적 맥락에서 이미 보편성을 획득한 것들에만 착목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현실 문제와 연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학의 보편성 담지의 역할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되, 유학 경전에 담긴 현대 한국사회에 직결되는 지혜를 재발굴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유학 경전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이나 문헌학을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는 리소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가 현대 한국의 로컬리티를 설명하는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자기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인데, 현재 유학이 외면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노력의 와중에 창출된 연구들이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학계에, 더 나아가 세계학계에 기여할 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모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도일 교수의 이러한 관점은 유교문화연구소의 과거의 반성 위에 현주소를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¹⁶⁾ 그리고 유교문화연구소 산하 한국유교편찬센터에서 한국의 유교문헌을 DB화하여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함도 또한 경학 현대화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술원 산하 인문한국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학 및 유학 연구는 이른바 한국학을 기저로 하는 동아시아학이라는 전제를 의식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인력의 절대적 부족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 와중에 소수의 교수들이 연구를 중심에 두고서 택한 방식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국경학 및 유학 전공자를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교육기관(동아시아학과,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에서 배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경학 연구자들은 지난

16) 또한 김도일 교수는 유학 연구가 어떻게 한국 현실에 대한 비판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논문에서 제언한 바 있다(김도일, 「유학 연구가 어떻게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가?—중국 대륙 신유학과 최근 한국 유학연구 경향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20년간 거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하였다. 때문에 한국경학 연구는 그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이에 최선의 노력을 들인 결과, 겨우 한국경학 연구의 맥을 이을 씨앗을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할 수 있었다. 이들이 학계에 연구자로서 위상을 획득하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동아시아학계에 한국경학을 알리고 그들로 여기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 대만의 대만대학교의 黃俊傑, 蔡振豐 교수, 대만사범대학교의 金培懿 교수, 중앙연구원의 林月慧 교수 등이 한국유학과 경학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는 시점과 맞물려서 하나의 성과를 이루었다. 바로 2016년부터 한국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와 대만의 김배의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격년으로 동아시아 경학을 연구하는 모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동아시아 경학연구회는 비록 한중일 삼국의 경학을 다루지만, 1회~3회까지는 한국경학을 중심에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그 연구의 질적 수준이 기왕의 퇴계학이나 다산학¹⁷⁾ 연구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출발점이 설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잠정적으로 한국경학에서 가장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는 면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찌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학의 핵심적 면모가 그 시대에서만 초미의 주제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현재에도 맥락성을 가지는 의미 있는 주제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퇴계학이나 다산학은 당대적 의미도 있었지만, 현재에서 항상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하였기에 지금 연구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경학도 어찌면 그러한 주제의식을 찾아내어 입증하였을 때, 지금의 초보적이고 산만한 연구가 지향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국과 동아시아에 발신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의 학술적 기여는 이 연구기관이 창립된 1958년부터 행해진 영인작업에 연속하는 측면이 강하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대동

17) 퇴계학은 1970년대 국내에 퇴계학 관련 연구기관이 설립되면서, 이후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구의 열풍이 불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문용, 「퇴계와 퇴계학, 그리고 퇴계학연구」, 『오늘의 동양사상』 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1, 34면; 김기현, 「세계속의 퇴계학」, 『오늘의 동양사상』 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1 참조). 한편 다산학은 1998년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 다산학을 알리고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현재 퇴계학과 다산학은 한국유학 연구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그러하다.

문화연구원의 전근대 전적의 영인은 기왕의 있는 책의 단순한 영인의 범주를 넘어서었다. 학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적의 영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전적을 새롭게 발굴하여 영인하거나, 『한국경학자료집성』이나 『近畿實學淵源諸賢集』, 『茶山學團文獻集成』 같은 대규모 선집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작업은 한국 학계 뿐 아니라 일찍이 동아시아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중시되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대동의 영인작업은 그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확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의 고전정리와 영인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방면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일찍부터 자국의 문헌을 선별하여 집성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중일의 이런 전통은 근대로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경우, 嚴靈峰(1903~1999)이 ‘無求備齋集成’이라는 제하에 『論語』, 『孟子』, 『荀子』, 『莊子』, 『老子』 등의 주석을 회집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20세기에 들어와 자국의 경학과 유학 전적을 집성하여 『日本名家四書注釋全書』, 『日本儒林叢書』 등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국의 문헌을 집성하는 양상이 퇴조한 반면, 중국은 유교종주국으로 위상을 확립하려는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자국의 유학문헌 뿐 아니라, 동아시아 유학문헌도 자국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대규모 영인사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 출판된, 북경대학 편 『儒藏』精華編 100책과, 2010년에 中國人民大學, 河南大學, 北京大學, 清華大學, 中華書局, 中國社會科學院이 합작하여 정리한 다음 華夏出版社와 中國人民大學出版社에서 출간한 國際儒藏(韓國編四書部)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86년부터 진행한 ‘韓國文集叢刊’ 간행 사업은 한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한국의 전시기 문집을 망라하는 역사였다. 지금은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 간행된 한국문집을 전산화하여 공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에 거점번역연구소를 두고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이미 195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려와 조선 유학자들의 중요 문집영인과 유문의 집성, 그리고 한국경학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과 정리를 하였다. 이는 한국의 문집과 경학자료의 정리에 관한 선행을 대동문화연구원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문집에 한정하면 한국고전번역원이, 경학자료는 중국의 정리가 대동문화연구원의 지난 업적을 넘어서고 있다.

대동문화연구원의 문집과 경학자료의 영인은 원전을 그대로 간행한 것에 비해, 한국 고전번역원과 중국은 원전에 표점을 가하여 출판하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작업은 지속될 부분과 새롭게 진행하여야 될 지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속될 부분은 개인이든 학파든 중요문헌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전서 혹은 보유의 형태로 재출간하는 것이다. 바로 『강산전서』, 『증보명남루총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왕의 『한국경학자료집성』, 『근기실학원원제현집』과 같은 대규모 선집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철학방면으로 한정한다면, 문집을 제외하고 한국유학의 專著들을 수집하여 영인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한국유학은 퇴계학, 율곡학, 양명학, 실학으로 그 층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핵심적 자료들에 관한 수합과 정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朝鮮儒學思想資料集成』이라는 제하에 경학자료와 시문을 제외한 전서를 모두 수합하여 퇴계학, 율곡학, 양명학, 실학으로 구분하여 총 100책 정도의 집성본 출간을 진행한다면, 이는 『韓國經學資料集成』 145책을 계승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내외로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출간을 넘어서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학문연구의 근간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외 한국의 전근대 자료에 대한 영인의 남상이 대동문화연구원에 있으며, 현재도 다른 기관에서 쉽사리 하지 못하는 영인작업의 계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잘 계승하여 현재에 살린다면,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출판의 학술사적 의미는 여전히 유의미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동아시아학술원의 20년의 연구활동 중에서 그 철학방면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점검하고 위상을 부여해 보았다. 다양한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반성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리의 즈음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자가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부족함은 실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학계가 공히 짊어지고 있는 부담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세 연구기관이 기왕에 자신들이 구축한 업적위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투고일: 2020.11.10

심사일: 2020.12.07

게재확정일: 2020.12.08

참고문헌

- 『言解四書』
『近畿實學淵源諸賢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增補 明南樓叢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薑山全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茶山學團文獻集成』,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김도일, 「유학 연구가 어떻게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가? -중국 대륙신유학과 최근 한국 유학연구 경향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81, 한국유교학회, 2020
- 김문용, 「퇴계와 퇴계학, 그리고 퇴계학연구」, 『오늘의 동양사상』 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1
- 김기현, 「세계속의 퇴계학」, 『오늘의 동양사상』 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1
- 이영호, 한영규, 「대동문화연구원 출간사업의 성과와 의의」,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 임형택, 「『연행록선집 보유』 간행사」, 『연행록선집 보유』,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안대회, 「『능양시집』 간행사」, 『菱洋詩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이봉규, 「실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학연구』 4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이영호, 서혜준, 「『대학』 해석의 역사와 그 번역의 문제」, 『한국 경부번역의 현황과 전망2-사서 및 자부 유가류 문헌 검토』(발표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9
- _____,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_____,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차이나브리프』 7(3),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2019
- 한기형,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AEAS's Research Performance Reports, with a
Focus o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thought and
Philosophy,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Focusing on Confucian studies and
Confucian Classics

Lee, Young-ho · Kim, Doil

Three representative research institutes of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are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s, and Humanities Korea Project Institute. Their philosophy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writing (publication of books, translated works, and photocopy editions) by these three and has been expanded its scope through academic conferences and establishing database. Since its opening of the Academy, the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s has published Confucian Culture Translation Series and Confucian Culture Research Series to address the issue of the modernization of Confucianism. Also, academic conferences held since the 2000s focused on the modernization of the Confucian studies (Confucian Classics). In contrast, the research by the Humanities Korea Project Institute has been focused on East Asian classical philosophy based on Korean Confucianism, and only recently has the foundation of East Asian solidarity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the publication of Classic Photocopy Series by the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Joseon Confucian classic, which has become a very important academic asset, both at home and abroad.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database establishment, the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s 유경정본화사업 Project, the HK's Korean Confucian Classics

Data System, and the Terminology Data System of Zhu Xi's Learning can be discussed. These three sites are good examples of the establishing database on Korean Confucianism, especially Korean Confucian Classics. This is indispensable database for future research on Korean classical philosophy.

The Academy aims to deepen research awareness and expand its database archiving based on the achievements in classical philosophy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this process, we will maintain a critical view of East Asian classical philosophy research so far and endeavor to identify problems. Based on this, we will ultimately seek out a self-sustaining academic discourse that is recognized in East Asia of globally.

Key Words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s, and Humanities Korea Project Institute, Modernization of Confucian Studies, Korean Studies, East Asian Classical Philosophy